

최근 북한경제 연구 동향 및 향후 과제

정승호 | 인천대학교 부교수 | shjung@inu.ac.kr

I. 머리말

북한경제 연구의 주요 아젠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북한경제 자체에 대한 연구, 둘째는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셋째는 경제적 통일 준비에 대한 연구다. 저자의 관찰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연구의 비중은 정부 성향에 따라 시기별로 달라지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진보 성향의 정부에서는 남북경제협력 연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보수 성향의 정부에서는 경제적 통일 준비 연구가 더 강조되었다. 반면, 북한경제 자체에 대한 연구는 이념적 성향과 상관없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북한이라는 연구 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책적 수요에 맞춰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정권에 따라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세 가지 연구는 상호 보완적이며, 한 분야의 연구가 다른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 내부 경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도출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새로운 경험방안을 통해 북한경제의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경제 및 경험 연구의 축적은 통일 준비 연구의 현실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현재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과 국제정치 환경은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 분야의 연구가 균형 있게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은 북한경제 연구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북한경제 자체 연구, 남북경제협력 연구, 그리고 통일 준비 연구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를 다룬다. 최근 북한경제 연구는 빅데이터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활발해졌으며, 북·러 관계의

변화와 미·중 갈등 등 국제 정세 속에서 남북경협과 통일 준비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통일 준비 연구에서는 통일에 대한 지지와 관심이 저하되는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각 연구분야의 최근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북한경제 자체에 대한 연구

북한경제 자체에 대한 연구는 최근 가장 두드러진 발전을 보인 분야 중 하나다. 기존의 무역 및 시장 가격 데이터, 국제기구의 보건 및 식량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 나아가, 인공위성의 주야간 데이터, 대기 환경 데이터, 해운 및 선박 데이터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하다. 야간조도 데이터는 경제 총량 측정(Kim, Kyoochul, 2022), 경제 제재의 영향(Kim et al., 2023), 지역별 경제 격차 분석(Kim, Dawool, 2022) 등 여러 분석에 사용되고 있다. 주간 영상에 기계학습 기법을 적용해 경제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Ahn et al., 2023; 이시효 외, 2023). 최근에는 위성 기상 관측 자료를 활용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식생지수를 활용해 극한 기후가 농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김다울 외, 2022)나, 대기 중 이산화질소 및 이산화황 농도를 통해 공기 오염도와 산업 활동 간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이원진, 2023; Chong et al., 2023)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해운 및 선박 데이터를 통해 북한의 해상 물동량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도 북한경제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윤인주, 2022).

한편, 올해 통일부는 2010년부터 시작된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약 6천명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 정보를 공개하였다. 이는 연구자들에게 미시 데이터를 통해 북한경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현재는 기간별로 합산된 자료만 공개되었고 원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분석에 제한이 있다. 향후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처럼 일정 심의를 거친 후 비식별화 과정을 통해 원자료가 연구자들에게 공개된다면, 북한의 경제, 사회, 주민 의식 등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등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한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지역적 이슈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안보와 경제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경제 연구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를 해외 연구자 및 정책 결정자들과 신속하게 공유함으로써,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III. 남북경협 연구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연구는 변화된 국제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경험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간의 경제적 밀착이 심화하고 있으며, 미·중 갈등 속에서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중국에게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신냉전’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우며, 한·미·일 동맹에 맞서 북·중·러 결속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2021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평가르기 식 대외정책으로 인해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으로 변화하면서 현 국제정세는 한층 복잡해졌다”고 언급하며, “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선린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주적이며, 통일이나 화해, 동족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 때, 과거의 민족 특수성에 기반한 기존 남북경협 틀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국제 정세 변화를 반영한 남북경협 방향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김계환 외(2022)는 동아시아 공급망 재편이 북한 산업 발전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남북 산업협력의 방향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석 외(2022)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국제 공급망 재편 속에서 남북경협의 민족 내부거래 틀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고, 배타적 남북경협 대신 국제사회의 연계를 통한 대북경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경험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제학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와 안보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한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하다. 일례로, 이재영 외(2023)는 미·중 공급망 재편이 한반도에 미칠 지정학적 결과와 한국의 대응전략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의 신냉전 프레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다자간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다자간 협력 접근방식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협협전략 수립에 필요하다. 여러 연구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다양한 다자 협력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북한이 신냉전 구도를 통해 얻으려는 정치적 이익을 약화시키고, 북한을 국제경제질서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IV. 통일 준비 연구

통일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로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이념적 성향과 관계없이 중요한 책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 과정에서 남북 간의 협상보다 더 어렵고 중요한 과제는 남한 내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일이다. 이 점에서 남한 내 통일 의식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더욱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23 통일 의식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3.8%로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반면에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일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응답자의 33.9%가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통일 반대 여론 증가의 주된 원인임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정승호 외(2022)는 젊은 세대, 여성, 낮은 교육수준, 블루칼라 계층이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통일 준비 과정에서는 국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통일에 대한 변화된 여론과 우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통일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에 대한 연구도 통일 준비에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최근 중요한 변화는 적응 연구가 기존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 데이터와 행정 데이터를 이용한 객관적인 장기 추적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Jung et al.(2023)은 NICE평가정보가 보유한 개인 신용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신용거래 행태를 분석하였고, Wee and Kim(2023)은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데이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이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을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경제적 동화와 사회 통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는 통일 준비 연구의 중요한 축으로, 통일 후 사회적·경제적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V. 결론

북한경제 연구는 북한경제 자체 연구, 남북경제협력 연구, 그리고 통일 준비 연구라는 세 가지 주요 아젠다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북한경제 자체 연구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북한경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통일부의 ‘북한 경제, 사회 심층 정보’ 데이터 공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료 공개가 필요하다. 또한, 북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공유도 필요하다.

남북경제협력 연구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과거의 민족 특수성에 기반한 기존 경험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학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와 안보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한 학제 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와의 다자간 협력 접근방식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남북경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북한의 ‘신냉전’ 프레임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경협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준비 연구는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여론 변화와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통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에 대한 장기적 추적 연구는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경제적 동화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북한 및 통일 연구는 각 분야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 예산과 인력은 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 따라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된다면 각 분야의 연구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실질적 준비에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계환, 이석기, 김수정, 강유덕, 『동아시아 공급망 재편과 북한 산업발전에 대한 시사점』, 산업연구원, 2022.
- 김범수, 김병로, 김성희, 김학재, 이성우, 조용신, 조현주, 김민지, 『2023 통일의식조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3.
- 윤인주, 『북한 해운기업 · 선박 등록 · 운영 실태 조사 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2.
- 이석, 이석기, 김규철, 조동호, 『새로운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의 모색』, 한국개발연구원, 2022.
- 이시효, 김성배, 기정훈, 「평양 모자이크: 위성사진과 GIS를 활용한 평양 도심 15개 구역 빈부격차 연구」, 『현대북한연구』, 26(1), 2023, pp.45~83.
- 이원진, 「환경위성 자료를 이용한 북한 경제 분석 가능성 연구: 위성 관측 이산화질소 농도와 북한 GDP 상관관계 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23년 6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23.
- 이재영, 이용재, 윤정현, 정승호,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과 중러북 경제관계 변화 대응 전략』, 통일연구원, 2023.
- Ahn, D., Yang, J., Cha, M. *et al.* A human-machine collaborative approach measures economic development using satellite imagery. *Nat Commun* 14, 6811, 2023.
- Chong, H., S. Lee, Y. Cho, J. Kim, J. H. Koo, Y. P. Kim, Y. Kim, J. H. Woo, and D. H. Ahn. “Assessment of air quality in North Korea from satellite observations,” *Environment International*, 171, 107708, 2023.
- Jung, SH, BK Min, and JW Kim. Analysis of the Financial Behaviors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Economic Studies*, 35(2), 2023, pp.107~140.
- Kim, Dawool. “Assessing regional economy in North Korea using nighttime light,” *Asia and the Global Economy*, 2(3), 2022.
- Kim Jihee, KC Kim, SY Park, C. Sun, “The economic costs of trade sanctions: Evidence from North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ume 145, 103813, 2023.
- Kim, Kyoochul. “The North Korean economy seen by satellite: Estimates of national

performance, regional gaps based on nighttime light,” *Journal of Asian Economics*, 78, 2022.

Wee, H. and Kim, D. “Health and Labour Market Outcomes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Global Economic Review*, 52(4), 2023, pp.251~278.